

보도일시

(인터넷) 즉시 보도 가능
(지면) 즉시 보도 가능

배 포 2026. 7. 14.(화) 10:00

목포해수청, 전남 완도 ‘횡간도등대 개량공사’ 준공

- 높이 두 배(5→10m) 시인성 개선으로 선박 안전 운항에 크게 기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영자)은 전남 완도군 횡간수도 인근을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추진한 ‘횡간도등대 개량공사’를 7월 13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5억 원을 투입하여, 지난 3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통항 선박 안전 운항을 위해 두 달 앞당겨 완료했다. 기존 등대는 해풍 등 열악한 바다 환경에서 43년 장기 사용으로 노후화돼 개량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개량공사로 등대 높이가 기존 5m에서 10m로 두 배 커져 통항 선박이 더 먼 거리에서도 등대 불빛을 볼 수 있도록 시인성을 크게 개선하였다.

횡간도등대는 서남해 연안항로인 횡간수도의 중앙에 위치하여 여수, 목포, 제주도를 통항하는 선박뿐만 아니라 주변 노하도, 보길도, 소안도, 청산도 등을 통항하는 선박의 길잡이 역할을 해오고 있다.

강대웅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은 “이번 횡간도등대 개량에 따른 시인성 개선으로 통항 선박 안전 운항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노후화된 시설 개량 시 선박에서 잘 볼 수 있도록 기존 등대보다 크게 지어 안전한 바닷길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책임자	소 장	강대웅 (061-542-9660)
		담당자	주무관	전진기 (061-542-9661) 김의겸 (061-542-9667)



위 치 도



횡간도등대 전경